



문 : 갑상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갑상선에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 갑상선은 인체의 목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선으로, 신체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갑상선의 질환은 그 크기와 기능의 변화에 의해 구분지어진다.

갑상선이 전체적으로 커져있는 경우를 갑상선종(Goiter)이라 하고, 국소적으로 커지면 갑상선 결절(Thyroid nodule)이라 하며, 갑상선종의 경우 그 표면이 평활한 경우는 미만성 갑상선종(Diffuse Goiter), 그 표면이 울퉁불퉁한 경우는 결절성 갑상선종(Nodular Goiter)이라고 한다.

이런 갑상선 질환들은 그 질환의 종류와 병의 경과에 따라 기능항진증, 기능

저하증을 나타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질환도 있다.(아래표 참고)

### 가) 임상증상

임상증상은 갑상선 크기의 증가라는 공통된 특징 이외에 기능항진증과 기능저하증에 의한 증상이 나타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 심장박동이 빠르고 지나치게 힘차며, 몹시 신경질적이고,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며 더운 곳에서 힘들어하고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축축하며, 머리카락은 가늘고 부드러운 감을 준다.

또한 월경량이 감소되거나 무월경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식욕이 왕성해져 많은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감소하는 증상을 나타낸다.

기능항진증을 나타내는 질환중에서

### 갑상선 종과 갑상선 기능과의 관계

갑상선종 기능	미만성 갑상선종	결절성 갑상선종
항진	바세도우씨 질환 아급성 갑상선염의 초기 만성 갑상선염의 일부(회귀)	Plumer's disease(회귀) 선종양 갑상선종의 일부(회귀)
정상	단순성 미만성 갑상선종 만성 갑상선염 아급성 갑상선염 그레이브씨 질환의 일부(회귀)	단순성 결절성 갑상선종 기능성 결절성 갑상선종(비종독성) 선종양 갑상선종 약성 갑상선종
저하	만성 갑상선염 호르몬 합성 장애 갑상선종	

가장 흔한 질환은 그레이브씨 질환(과거 바세도우씨 병이라 불림)으로, 기능항진증을 동반한 갑상선종과 안구 돌출증, 경골전 점액수종이라는 3대 특징을 갖는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으로는 정신적으로 매우 둔감하고 무감동적이며 심장박동이 느리고 몹시 추위를 타며 피부 온도가 낮아져 싸늘하게 느껴지며 땀이 적게 나고 피부는 건조되고 거칠어진다.

계절마다 아프게 느낄 수도 있으며 변비가 심하거나 잘 먹지 않아도 체중이 증가되고, 전신적으로 부어 있는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린이의 경우 성장발육이 저하되어 난장이가 되기도 하고 중추신경계의 발육저하에 의해 백치가 될 수도 있으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

#### 나) 진단

갑상선 질환의 진단은 먼저 경험있는 전문의의 진찰에 의해 갑상선의 크기의 변화와 그 성질을 결정해야 하고, 위에서 나열한 임상증상들의 출현으로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갑상선 기능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갑상선 기능 검사라는 간단한 혈액검사를 받아봄으로써 확실히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조직 검사나 동위원소 촬영

등도 갑상선 질환을 감별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다. 치료

갑상선 질환의 치료방법으로는

- 첫째, 항 갑상선제의 복용
  - 둘째,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 셋째, 수술요법
-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갑상선 질환이라 하더라도 각 질환의 특성에 따라 꼭 치료를 요하지 않고 관찰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환자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서도 치료방법을 달리 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며 정기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봄으로써 치료의 결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갑상선 질환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 많으며, 그 원인은 요오드 섭취의 부족과 갑상선 호르몬 생성과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든가 자가면역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오드 섭취가 부족되는 경우는 드물고 자가면역 질환에 의한 경우나 분만 후 볼 수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갑상선 질환의 유병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건강진단, 특히 갑상선 기능검사를 받아 봄으로써 조속히 질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지부 부속의원장 이증범박사)